

* 평: 50문제... 10지문에 80분 밖에 안 줘서 마킹하고 바느라게 거꾸 나 걸렸어. ㅠ

개를 번역이었으니 다 못했지, 수능 생장이었으면 ㅠ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두통이 있어서 평상보다 수능 집중도가 좀 떨어졌... 어... 죄송합니다 ㅠ

특유의과 풀때 문헌작이 가장 수능 환관

불기 내치하는 듯함 ^^ 그 다음 문헌

사고 평이 좋은 대한 문헌

기분 탓인지도 ㅋㅋ

제 12 회 2009학년도 수능 플러스 (A형)

96 good!
디자인국어
http://blog.naver.com/ask1202
(A형)

- '2009 수능 언어 기술'을 근간으로 하되, 현행 '수능 국어' 문제지 형태에 근접하도록 문항 배열 등을 바꾸어 편집하였다.
- 문항 수 등에서 현행 문제지 형태와 차이가 있으며, 화법·작문·문법 등은 출처가 다른 문항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1~2]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이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000입니다. 먼저 TV 뉴스의 인터뷰 장면을 보여 드리죠.

인터뷰 내용 : "아들이 학교에 가면서 '엄마, 이번 생선은 그냥 문상으로 주세요.'라고 말하고 갔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순간 당황했죠. 잠시 후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그거야 생일 선물로 문화상품권을 달라는 말인 걸 알았단니까요. '문상'은 장례식에 가는 걸 말하는 데....., 이젠 아들하고 대화하기도 쉽지 않네요."

(잠시 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평소에 부모님 세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죠? 실제로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줄임말이나 은어를 사용하는 고교생이 전체 학생의 98%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줄임말과 은어 사용은 최근 세대 단절, 우리말 파괴 등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러한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청소년들은 왜 줄임말이나 은어를 사용할까요? 다음 통계 자료를 보시죠.



보시다시피,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낼 때에는 짧은 글에 많은 양의 내용을 담아 빠른 시간 안에 보내야 하죠. 그리고 인터넷, TV 등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이런 줄임말을 여과 없이 많이 보여 줍니다. 무엇보다 제가 주목한 것은 성적과 입시 위주의 교육이 팽배한 학교에서 고립감과 상실감을 느낀 청소년들이 우리 세대만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찾기 위해 부모님 세대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줄임말과 은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뒤쳐질 수 없다는, 최신 유행을 따르려는 심리적인 이유도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우리 학급 학생들의 90% 이상이, 줄임말이나 은어를 사용하는 것은 옛날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라면서 걱정할 것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갑늘', '귀척' 같이 수궁이 가는 줄임말들을 사용하다가 갈수록 '전찌버거', '안어페' 등 인신공격적인 말들, '썬타요' 같은 국적 불명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말 규범을 무시하고 우리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듣고 말하는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읽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게 듣고 끊게 말하는 교육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해결 방안이 더욱 방화한 글이라 보았다... ㅠ

1. 다음은 위 발표를 위한 사전 계획이다. 발표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1. 발표 유형: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득적 말하기
2. 청중 분석:
 - 대상: 학급 친구들
 - 사전지식: 대부분이 평소 줄임말이나 은어를 사용했을 것임. ①
 - 90% 이상은 줄임말이나 은어 사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 ②
3. 발표 전략:
 - 시청각 자료와 통계 자료를 보여 주면서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③
 - 청중과 발표 맥락을 공유하기 위해 줄임말과 은어의 실제 예를 제시함. ④
 - 발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급 친구들이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함. ⑤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무의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교육의 실천 주체를 교육자, 즉 선생이지 학생이 아니다. good.

2. 위 발표에 대한 상호 평가 과정에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제기한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모님 세대의 줄임말이나 은어 사용 체험을 덧붙이면 발표 주제를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② 발표자가 제시한 통계 자료의 출처와 구체적인 설문 조사 문항을 제시한다면 신뢰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 ③ '청소년들이 줄임말과 은어를 사용하는 이유' 가운데 세대 간의 갈등에 주목한 이유를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 ④ 우리보다 줄임말이나 은어 사용이 더 심각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대한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 ⑤ 이미 학교에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교육을 강화하여 줄임말과 은어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글 읽으면서 '항 통계 자료', '다음 통계 자료', '어제 실시한 설문 조사' 등 자료에 대한 구체적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인터뷰, 대화, 발표 등 어떤 출처든 사진, 영상, 통계 자료 등이 제시되면, 그에 대한 성지 하나라도 출처되는 1권 제 12 회 - 2009학년도 수능 플러스 (A형) 경우가 많을 거라서... ㅎ

good!
이제 너무 당황한 건데... ㅎ
이제 걱정할 것 같아!

3. ①~⑤를 통해 알 수 있는 '구두 언어'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철민 : 영화야, 이것 좀 볼래? (교지를 펼쳐며) 내가 교지에 썼던 글인데.....
 영화 : ①아, 지금 내가 가리고 있는 그 구절 말이구나. 응, 무슨 일이야?
 철민 :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이야. 일단 '디아스포라'가 어디에서 유래한 말이야? 유대인과 관련된 말이었던 것 같은데.....
 영화 : ②유대인과 관련된 것이 맞아. 요즘은 좀 다르지만.
 철민 : 그렇다면 요즘에는 어떠한 의미로 쓰이는 거야?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말도 들어본 것 같은데.
 영화 : ③응, 맞아. 그 말은 전쟁 때문에 한반도를 떠난 한국인들을 뜻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꼭 유대인이 아니라라도 타의에 의해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를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고 있지.
 철민 : ④(고개를 끄덕이며) 너를 직접 만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잘되네. 설명해 줘서 고마워.
 영화 : 고맙긴 참, 우리 다음 주에 영화 보러 가기로 했지? 그럼 그날 보자. 그때까지 잘 지내.
 철민 : ⑤그래, 너도.

- ① ① : 대화 상대방과 시간적, 공간적 상황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② : 대화 상대방의 말을 받아 더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
 ③ ③ : 대화 상대방과 즉각적으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 ○
 ④ ④ :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⑤ ⑤ : 대화의 맥락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나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생각을 처음 보면, 쉽게 판단을 못 내여서, 나중 선택된 순간, 일단 답이라는 가정 하에서의 근거는 철민이 확신이 없이 망설임, 설득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동료 몇몇을 시켜주는 장면이라고 판단. 그런데 ②를 통해 상대의 말을 받아서, 앞으로 좀 더 확실한 [4-5] 다음 대화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내용을 표현한다고는 볼 수 없지?

학생 A : 오늘 발표했다면? 정말 고생 많았어.
 학생 B : 고생은 쫌..... 완전히 망친 것 같아. 발표 날짜가 시험 기간과 겹쳐서 자료 조사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학생 A : ①시간이 부족해서 힘들었겠구나. 괜찮아. 너 최선을 다했잖아.
 학생 B : 열심히는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 발표하기 전에 자꾸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런지 딱 잘 많은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시작하려고 하니 준비한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더라고. 머릿속이 새하얘지던걸.
 학생 A : ②아마 발표를 많이 해 보지 않아서 그럴 거야. 처음 가보는 교실이라 더 낯설었을 거고.
 학생 B : 그건 그렇더라. 어찌나 떨리던지. 발표를 하는 내내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상대방의 말이

이건 ②(상대방의 말을 받아 더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내와 비웃고, 어찌나 떨리던지,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런 것들이 다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내내와 비웃고, 어찌나 떨리던지,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학생 A : ③그 상황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 법도 하지. 하지만 다음부터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아. 내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 줄까?
 학생 B : 그게 뭔데?

학생 A : ④내가 『말하기 안내』라는 책에서 본 방법인데, '카드식 실행 개요'라는 것이 있어. 발표하기 전에 손바닥만 한 두꺼운 종이에 발표할 내용을 간략히 적는 거야. 발표할 때는 그것을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떠올리는 거지. 이렇게 하면 발표할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청중과 교감하며 발표할 수 있어.

학생 B : 괜찮은 방법이네. 다음 주에도 발표를 해야 하는데 그때 한번 시도해 봐야겠어.

학생 A : 다음 발표를 할 때는 내가 청중석에 앉아 있을게. ⑤내가 고개를 끄덕여 주면 내가 편안하게 발표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거야.

4. ①~⑤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② : 상대방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음이 드러나 있다. ○
 ③ ③ : 상대방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긍정하지는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
 ④ ④ : 정보의 출처를 밝혀 상대방에게 자신의 발언에 대해 신뢰감을 주고 있다. ○
 ⑤ ⑤ : 의사소통 과정에서 청자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

5. <보기>를 바탕으로 '학생 A'와 '학생 B'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말하기 불안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기 전이나 말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 증상이다. 제시된 대화에서는 학생 B가 경험한 말하기 불안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① '학생 B'가 말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이 말하기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
 ② '학생 B'는 청중이 자신의 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할지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여 말하기 불안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학생 A'는 말하기 환경이 '학생 B'에게 친숙하지 않았던 것이 말하기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
 ④ '학생 A'는 '학생 B'가 실제 말하기 단계에서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조언하고 있다. ○
 ⑤ '학생 A'의 조언을 통해 '학생 B'는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을 개선하여 말하기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 ×
 ⑥에 대한 내용은 대화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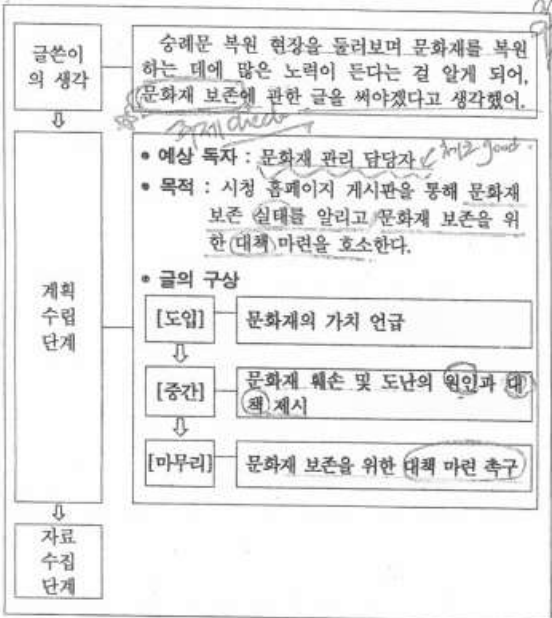
6. <보기>의 우화를 바꿔 쓰기 위해 토의해 보았다. 사고 방향에 따른 바꿔 쓰기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참나무가 갈대에게 험자랑을 하고 있었다. 허약하고 바람에 쉽게 굽힌다는 참나무의 놀림에 갈대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 닦쳤다. 갈대는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바람을 이겨 냈지만, 제 힘만 믿고 바람에 맞서 버티던 참나무는 결국 부러지고 말았다. - '이습 우화'

- ① 나는 이 우화의 서술 시점을 바꿔 보겠어. 갈대를 서술자로 만들어, 갈대가 직접 사건을 진술하여 자신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도록 해야지. 0
- ② 나는 이 우화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 보겠어. 비판적인 관점에서 갈대를 평가하여, 강한 힘 앞에서 쉽게 굴복하는 나약한 존재로 나타낼 거야. 0
- ③ 나는 이 우화를 현실 상황에 적용해 보겠어. 자신의 재주를 내세우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물과 유연한 자세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인물을 찾아, 이야기를 꾸며 볼 거야. 0
- ④ 나는 이 우화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겠어. 참나무와 갈대가 삶의 방식을 놓고 대화하는 장면을 설정하고, 거센 바람이 불어 닦치는 장면도 자세히 묘사할 거야. X
- ⑤ 나는 이 우화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이야기를 추가해 보겠어. 부러진 참나무가 튼튼한 건축재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보태어, 참나무가 지닌 삶의 방식에 가치를 부여해 봐야지. 0

7. 글쓰기를 위한 '자료 수집 단계'에서 <보기>의 자료를 접하였다. <보기>를 바탕으로 '글의 구성'을 보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신문기사
2012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문화재 도난 또는 도굴의 누적 건수가 729건에 이른다. 그러나 도난 당한 문화재 회수율은 17.5%에 불과하며, 해외 유출 문화재의 회수율 및 도굴 과정에서 파손된 문화재의 복원율도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나) 인터뷰
문화재 손실을 막으려면, 현장과 소방서의 연계를 강화하고 방재 관련 지침서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재 시설마다 방범용 CCTV를 10대 넘게 설치하려면 관계 법령을 정비해서 문화재 관리에 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다) 통계 자료 (○○지역 소재 문화재)

1. 화재 경보 장치 설치 현황 2. CCTV 설치 현황

- ① (가)를 활용하여, [도입] 부분에 '문화재 훼손 및 도난의 심각성'을 추가해야겠어. 0
- ② (가), (나), (다)-2를 활용하여, [중간] 부분에 문화재 도난 원인의 세부 항목으로 '도난 방지 시설의 미비'를 넣어야겠어. 0
- ③ (다)-1을 활용하여, [중간] 부분에 문화재 훼손 원인의 세부 항목으로 '화재 예방 시설의 미비'를 넣어야겠어. 0
- ④ (나)를 활용하여, [중간] 부분에 문화재 훼손에 대한 대책의 세부 항목으로 '관계 법령 정비 및 정부의 지원 확대'를 넣어야겠어. 0
- ⑤ (가)를 활용하여, [마무리] 부분에 '해외 유출 문화재 반환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 촉구'를 추가해야겠어. X

8. '함께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한다. <보기>의 조건에 따라 작성한 문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내용 :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삶을 지향하는 의도를 담는다.
발상 : 사물의 현상이나 속성을 뒤집어 봄으로써 기존 관념에 얽매지 않는 '거꾸로 생각하기' 발상을 한다.
표현 :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주제를 강조한다.

- ① 노인과 청소년이 하나 되는 세상, 유토피아와 다를 바 없습니다.
- ② 바다는 깊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한 당신의 열정이 더 깊습니다.
- ③ 작은 것이 더 큼니다. 현열을 큰 상처를 낮게 하는 작은 상처입니다.
- ④ 함께 웃는 우리 사회,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 ⑤ 산은 에베레스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산도 있고 뒷산도 있습니다.

- 1st. 발상 : ①, ⑤ 선지 소개 ④ 불확실, 애매.
 - 2nd. 내용 : ③ 선지 소개.
 - 3rd. 표현 : '대상과의 비교를 통한 주제 강조'가 생각보다 눈에 잘 안 들어왔다.
- ⇒ 종합 : ③ 선지, '작은 것이 더 큼' : 거꾸로 생각하기? '현열은 ~ 상처' : 거꾸로 생각하기? → 공동체 삶을 지향하는 의도.

마르고 당도록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친구들에게 여행을 추천하는 글을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자.

[학생이 쓴 글]

- 처음 쓴 글

진도에 가면 조수간만에 따라 바다가 갈라져 드러나는 바닷길이 있어. 그때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리는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아.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진도 여행을 추천할게.

A

- 수정하여 쓴 글

진도에서는 조수간만에 따라 바다가 갈라져 마치 모세의 기적과 같은 바닷길이 형성됩니다. 이 기간에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려 남도노래를 배우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여행으로 자연도 즐기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우리의 전통 문화도 경험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진도 여행을 추천합니다. 올해 '신비의 바닷길 축제' 기간은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입니다.

B

- 게시판에 올린 글

제목 : '진도 신비의 바닷길' 여행을 추천합니다!

진도에서는 조수간만에 따라 **㉠**물의 수심이 낮아지면서 바닷길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면, 조개도 즐기고 지역특산물도 무료로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강술래 **㉢**공연과 남도노래도 배울 수 있습니다. **㉣**진도군 역시 이 축제로 해마다 적지 않은 관광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축제에서 남도 민요를 배웠던 경험과 바닷길을 걸으며 느꼈던 상쾌한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해 보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많이 **㉤**소개해 주세요.

한 번의 여행으로 자연도 즐기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우리의 전통 문화도 경험할 수 있는 진도 여행! 올해 '신비의 바닷길 축제' 기간은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입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 '신비의 바닷길 축제' 홈페이지 <http://miraclesea.jindo.go.kr/>

9. 작은 과제의 수행 중 A, B에서 활용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글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 축제의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한다. ○
- ② A : 학교 홈페이지는 여러 사람이 읽는 공식적인 매체이므로 정중한 표현을 사용한다. ○
- ③ B :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직접 체험한 내용을 추가한다. ○
- ④ B :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한다. X
- ⑤ B : 독자가 축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더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시간적 순서에 따른 글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음.

홍시 모니 ㉤까지 확인! good.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의미가 중복되므로 '물'을 삭제한다. ○
- ② ㉡ : 문장 간 긴밀한 연계를 위하여 뒤의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
- ③ ㉢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공연도 보고'로 고친다. ○
- ④ ㉣ :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
- ⑤ ㉤ : 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소개시켜'로 고친다. X

⑤ 불필요한 시동 표현! → '-하다' 형으로 고쳐보고 말 되면 불필요.

수지생의 양한 문법 특강!! 돌돌걸...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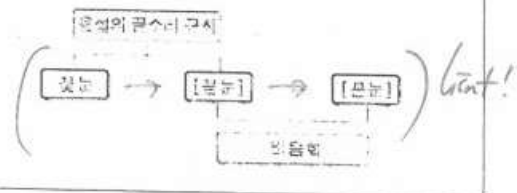
ㅋㅋㅋㅋ (이런 것들? 어떤 그 어떤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 거지?)

11. <보기>의 ㉠와 동일한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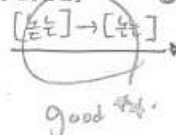
<보기>

오늘 국어 시간에 두 가지 음운 규칙을 배웠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이 [입]으로 소리 나는 것처럼 우리말 받침으로 소리 나는 자음은 '㉡, ㉢, ㉣, ㉤, ㉥, ㉦'의 일곱 개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규칙은 비음화인데 '㉧'이 [㉨]이 되는 것처럼 '㉩, ㉪, ㉫'이 [㉬, ㉭] 앞에서 비음으로 소리 나는 것이다. 이제 ㉠과 ㉡가 [㉮]으로 소리 나는 현상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 ① 끝까지[끝까지] ② 부엌도[부엌도] ③ 눈약[눈약]
- ④ 놓는[놓는] ⑤ 덮밥[덮밥]



이런 모음은 * 구멍이 여섯이나 큰 거야!

good

■ 끝까지 평가원을 들고 늘어진다.
■ 대중대중 독해 습관과 같 문제풀이와 부정한다.

마르고 당도록

1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침사에 의한 파생어 형성에서 접두사는 대부분 어근에 의미를 첨가해 주는 구실밖에 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접미사는 어근에 의미를 첨가해 줄 뿐만 아니라 어근의 통사본적 자질을 바꾸기도 한다. 어근의 통사본적 자질을 바꾸는 경우에는 접미사에 의해 어근의 품사 변화가 일어난다는 예가 대표적이다.

- ① '사슴의 먹이'에서 '먹이' O
- ② '높이 나는 새'에서 '높이' O
- ③ '힘껏 달리는 말'에서 '힘껏' △
- ④ '시원한 부채질'에서 '부채질' X
- ⑤ '서로 다른 크기의 짐'에서 '크기' O

수용어에서
O는 용어
△는 용어
X는 용어
→ 용어 변화가 일어난다!

②에서 당황했으나 <보기> 집중. 둘 다 변화가 일어난다!

'힘껏' ← '힘' + '-껏'
부사 ← 명사 접미사

④ '부채질' ← '부채' + '-질'
명사 ← 명사 접미사 good

14. <보기>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어떤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녔을 경우, 각각의 의미에 따라 반의어도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시계가 서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가다'인데, '공연을 서서 보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앉다'가 된다.

단어	예문	반의어
때다	주차장에서 차를 <u>때다</u> .	대다
	(가)	널다
	적금을 <u>때서</u> 빚을 갚았다.	(나)

(가)	(나)
① 풍선에서 바람을 <u>때다</u> . O	꽃다
② 설날이 다가와서 <u>가래떡</u> 을 <u>때다</u> .	더하다
③ 주머니에서 손을 <u>때다</u> . O	찾다
④ 새집 냄새를 <u>때다</u> . X	박다
⑤ 이번 경기에서는 그를 <u>때다</u> . O	들다

직접 용장에 반의어를 적용시켜 본다.
good

13.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며, 이러한 용언을 불규칙 용언이라고 한다. 불규칙 활용에는 ㉠어간이 바뀌는 것, ㉡어미가 바뀌는 것, ㉢어간과 어미 모두가 바뀌는 것이 있다.

<보기 2>
가. 묻다[問] : 묻- + -어 → 물어
나. 이르다[至] : 이르- + -어 → 이르러
다. 모르다 : 모르- + -아 → 몰라
르. 파랗다 : 파랗- + -아 → 파래
마. 휘젓다 : 휘젓- + -어 → 휘저어

- ① 가은 '묻-'이 '물-'로 변화했으므로 ㉠에 해당된다. X
- ② 나은 '-어'가 '-러'로 변화했으므로 ㉡에 해당된다. O
- ③ 다은 '오'가 탈락하고 '르'이 덧생겼으므로 ㉢에 해당된다. O
- ④ 르은 'ㅎ'이 탈락하고 어미 '아'가 어간의 '아'와 합쳐져 '하'로 바뀌었으므로 ㉢에 해당된다. O
- ⑤ 마은 'ㅅ'이 탈락하였으므로 ㉠에 해당된다. O

처음에 ①~⑤ 다 맞다고 판단. 뒤지... 러다가 ① 선택
형... ③... 가래떡처럼 새겨질 못 하니...
가 ③은 탈락하고 '르'가 덧생겼다는 것은 '르' 불규칙. 어간이 바뀌는 것이 해당된다. good

15. 다음의 ㉠, ㉡에 들어갈 용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 선생님, '이렇게 많은 걸 언제 다 모았니?' 라고 할 때, 여기서 '걸'은 띄어 써야 하나요? 아니면 붙여 써야 하나요? '걸'은 앞말에 붙여 쓰기도 하고 띄어 쓰기도 해서 혼란스러워요.

선생님 : 이 경우에는 띄어 쓰는 것이 맞아요. '걸'은 '것을'을 구어적으로 나타낸 것이랍니다. 여기서 '기'는 의존 명사 '것'에 해당하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겠지요. 그런데 '걸'이 가벼운 반박이나 감탄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때 '걸'은 '-느걸, -는걸' 등과 같은 어미의 일부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용례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볼까요?

띄어 쓰는 경우	붙여 쓰는 경우
㉠	㉡

- ① ㉠ : 몸에도 좋지 않은 걸 왜 먹니? O
- ② ㉠ : 내가 바라는 걸 너는 알고 있지? O
- ③ ㉡ : 날이 흐린걸 보니 곧 비가 오겠네. X
- ④ ㉡ : 그만하면 훌륭하던걸 뭐. O
- ⑤ ㉡ : 야, 눈이 많이 쌓였는걸! O

'이런 것'이 구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의존 명사 '것'이므로 띄어 쓰기를 해야 한다. good

187 1 권 제 12 회 - 2009학년도 수능 플러스 (A형)
이제부터는
1번이요 @라라라...
수능... 다들 @라라...
과다위로...
틀리면 안돼!! 하.

마르고 닳도록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은 개별적인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될 수 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고, B도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다면 이런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일반적인 인과가 도출된다. 이때 개별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인과를 '개별자 수준의 인과'라 하고, 일반적인 인과를 '집단 수준의 인과'라 한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집단 수준의 인과'의 필연성을 지닌다고 믿어 왔다.

2. 그런데 집단 수준의 인과를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령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진술에서 스트레스는 병의 필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단지 병을 발생시킬 확률을 높이는 요인일 뿐이라고 말한다. A와 B가 특정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집단 수준에서는 그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로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스트레스와 병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연적인 관계에 놓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집단 수준의 인과는, 'A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병에 걸리지 않은 경우'나 'A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병의 실제 원인은 다른 것인 경우' 등의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집단 수준의 인과는 별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3. 이처럼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두 수준의 인과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들은 개별자 수준의 인과가 지닌 복잡성과 특이성은 집단 수준의 인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령 A의 병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의 생활 습관 등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그 요인들이 우연적이며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거치며 발생될 수도 있다.

4. 이에 대해 ①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연관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병의 여러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과의 필연성이 성립된다고 본다.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스트레스와 그 외의 모든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때 여전히 스트레스가 병의 필수적인 요인이라면 개별자 수준의 인과의 필연성은 훼손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집단 수준의 인과의 필연성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6. 뒷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 ② 상반된 견해에 대하여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대비되는 두 관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 ⑤ 일반인의 상식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집단 수준의 인과를 독립적으로 보는 관점과 연관된 것으로 보는 관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는 것이다.
동등이 아닌 특이한 경우 두 가지의 대비는 두 가지

17. 뒷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반응: 알 수 있는 것은 더 나아가면 이유까지도

- ① 하나의 결과에는 항상 하나의 원인이 존재한다. X
- ② 집단 수준의 인과의 필연성은 오랫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X
- ③ 개별자 수준의 인과는 집단 수준의 인과를 일반화한 것이다. X
- ④ 집단 수준의 인과는 '개별자' 수준의 인과의 개연성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
- ⑤ 집단 수준의 인과의 개연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집단 수준과 개별자 수준의 인과를 독립적인 것으로 본다. ○
- ⑥ 서지도 2문단의 흐름 파악을 잘하면 자연어, 음운 서지명을 알 수 있다.

④은 쉽게 파악에 안되는 관계로 넘겨 줌. 자연어! X
⑤에 K

18. ㉠의 입장에서 <보기>의 (가)로부터 (나)를 이끌어 내려 할 때,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은 좋은 열매가 열리는 원인이다.
- 영희네는 좋은 씨앗을 심어 좋은 열매를 수확했다.
- (가) • 철수네는 좋은 씨앗을 심었으나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 우리 집은 좋은 씨앗을 심었으나 병충해로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 (나) • 그러므로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 사이의 필연적인 인과는 여전히 훼손되지 않는다.

- ① 좋은 씨앗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 ② 우리 집과 철수네가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 ③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 ④ 다른 모든 요인에도 불구하고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 ⑤ 병충해 방제와 적절한 물 공급은 좋은 열매를 맺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4문단을 제대로 읽으면 문단 내용 자체가 (가) - (나) - ㉠ - (나) 결론의 구성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대응한 식이면 답 쉽게 고를 수 있다!
1 권 제 12 회 - 2009학년도 수능 플러스 (A형)
가정어기
자연어와 문법적 두 수단이
비유적이라는 것을...?

A+: 집단 수준의 인과를 개별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 개별자 ~ 집단 ~ 독립적
상위 A: 개별자 ~ 집단 ~ 연관
하위 A: 개별자 수준의 인과
집단 수준의 인과.
이러나 가령의 대비

4문단 읽기...??

● 끝까지 평가권을 잡고 넘어간다.
● 대충대충 독해 습관과 김 문제풀이와 투쟁한다.

마르고 닳도록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최근 들어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의 하나로 창조 도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창조 도시는 창조적 인재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이다. 즉 창조 도시는 인재들을 위한 문화 및 거주 환경의 창조성이 풍부하며, 혁신적이고도 유연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도시인 것이다.

(나) 창조 도시의 주된 동력을 창조 산업으로 볼 것인가 창조 계층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창조 산업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창조 산업이 도시에 인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 다양성을 불어넣음으로써 도시의 재구조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창의적 기술과 재능을 소득과 고용의 원천으로 삼는 창조 산업의 예로는 광고, 디자인, 출판, 공연 예술, 컴퓨터 게임 등이 있다.

(다) 창조 계층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개인의 창의력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 계층이 모여서 인재 네트워크인 창조 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도시는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창조 계층을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것이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관건이 된다. 창조 계층에는 과학자, 기술자, 예술가, 건축가, 프로그래머, 영화 제작자 등이 포함된다.

(라) 창조성의 근본 동력을 무엇으로 보든, 한 도시가 창조 도시로 성장하려면 창조 산업과 창조 계층을 유인하는 창조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창조 도시에 대한 논의들 가운데 한 켤리는, 창조성이 도시의 유전자 코드로 바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개인의 자질, 의지와 리더십,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의 접근성, 조직 문화, 지역 정체성, 도시의 공공 공간과 시설, 역동적 네트워크의 구축 등이 그것이다.

(마) 창조 도시는 하루아침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추진 과정에서 위험이 수반되기도 한다. 창조 산업의 산출물은 그것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가치 평가를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창조 계층의 창의력은 표준화되기 어렵고 그들의 전문화된 노동력은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창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고유의 특성을 면밀히 고찰하여 창조 산업, 창조 계층, 창조 환경의 역동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

19 (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창조 도시의 개념 ○
- ② (나) : 창조 도시의 동력을 창조 산업으로 보는 관점 ○
- ③ (다) : 창조 도시의 동력을 창조 계층으로 보는 관점 ○
- ④ (라) : 창조 환경의 필요성과 구성 요소 ○
- ⑤ (마) : 창조 도시의 문제점과 전망 향후에 해결책이 가까울수록

20 밑줄을 바탕으로 <보기>의 'A시'와 'B시'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A시는 제조업 퇴조에 따른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의 산업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A시 시장은 사업 추진체를 구성하고, 이해 당사자 설득에 힘써 왔다. 공장을 미술관으로 개조하고 보행자 전용의 아름다운 현수교를 세워 관광객을 유치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있다.
- B시는 창의적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많다. 대기업 부설 연구 기관이 많아 자본도 많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 연구 기관들은 지역 산업체와의 교류가 부족해 경제적 부(富)가 지역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화된 연구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 ① A시는 문화 및 거주 환경의 창조성을 중시하고 있군. ○
- ② A시는 지도자의 의지와 리더십을 바탕으로 창조 환경을 마련하고 있군. ○
- ③ B시는 창조 환경의 요소 중 개인의 자질이 우수하군. ○
- ④ B시는 창조 계층과 산업 환경 간에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군. ○
- ⑤ A시와 B시 모두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창조 도시에 접근하고 있군. ○
- ④이 확실해서 답으로 선택하였으나, ⑤이 조금 잠깐... B시는 앞섰는데, A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창조 도시에 접근한 건 아니냐?

21 밑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창조 산업은 미래 예측성과 성공 가능성이 크다. X
- ② 창조 도시를 위해서는 기존 환경을 단시간에 개조해야 한다. X
- ③ 창조 산업과 창조 계층이 갖추어졌어야 창조 환경이 마련된다. X
- ④ 창조 도시에는 문화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
- ⑤ 창조 계층의 창의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표준화해야 한다. X
- ④ 항목에 관심이 많았어서 ⑤까지 선택한 후, 답으로 골랐다.

22 ㉠~㉣와 바뀌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갖추고 ○
- ② ㉡ : 늘리는 △ '창출하다'는 용어를 만들어내는 느낌에
- ③ ㉢ : 높이는 ○
- ④ ㉣ : 이끈 ○ 감했다. 이미 있는 것을 움직여주는 느낌 X
- ⑤ ㉤ : 따르기도 ○

A+ : 창조 도시
A : 창조 산업, 창조 계층, 창조 환경.

마르고 달도록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우리나라의 남해안 일대에서는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1만 개 이상 발견되었다. 이 화석들은 당시 한반도에 서식했던 공룡들의 특성을 밝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공룡 발자국 연구에서는 발자국의 형태를 관찰하고 발자국의 길이와 폭, 보폭 거리 등을 측정한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공룡의 종류, 크기, 보행 상태 등을 알아낸다.

공룡의 정제 방향 예상.

2, 3, 4 용량 해상 장아서 큰 그림 그려줘 시작!



2. 우선 공룡 발자국의 형태로부터 공룡의 종류를 알아낸다. 남해안 일대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은 초식 공룡인 용각류와 초식/육식 공룡인 조각류의 것으로 대별된다. 용각류의 발자국은 타원형이나 원형에 가까우며 앞발이 뒷발보다 작고 그 모양도 조금 다르다. 이들은 대체로 4족 보행렬을 나타낸다. 조각류의 발자국은 세 개의 독특한 발가락이 앞으로 향해 있고 발뒤꿈치는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이들은 대개 규칙적인 2족 보행렬을 보인다. 조각류의 발자국은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세 개의 발가락과 좁고 뾰족한 발뒤꿈치를 보인다. 조각류처럼 2족 보행렬을 나타내지만 발자국의 길이가 발자국의 폭보다 더 길다는 점이 조각류와 다르다.

초 < 몸: 타원형 > < 꼬: 2족 >

정확한 길이와 면적에 대해 설명하라. 2.3.4 용량 해상 장아서 큰 그림 그려줘 시작!

$h = 4FL$

3. 다음으로 공룡 발자국의 길이로부터 공룡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발자국의 길이(FL)'에 4를 곱해 '지면으로부터 골반까지의 높이(h)'를 구하여 $[h = 4FL]$,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4족 보행 공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뒷발자국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단, h와 FL의 비율은 공룡의 성장 단계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적용된다.

$\frac{SL}{h}$
2.04
2.0~2.9
2.99

4. 또한 보폭 거리(SL)는 보행 상태를 추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SL은 공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SL을 h로 나눈 '상대적 보폭 거리 $[SL/h]$ '를 사용한다. 학자들은 SL/h 의 값이 2.0 미만이면 보통 걸음, 2.0 이상 2.9 이하이면 빠른 걸음이었을 것으로, 2.9를 초과하면 달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 남해안 일대에서는 공룡 발자국 외에도 공룡의 뼈나 이빨, 다른 동식물의 화석 등도 발견된다. 공룡 발자국과 함께 발견되는 물결 자국이나 건열 등의 퇴적 구조를 분석하여 발자국이 만들어진 당시의 기후나 환경을 짐작할 수 있다.

• 건열: 건조한 대기로 인해 땅 표면이 갈라져 갈라진 것.

A: 공룡 발자국 연구
A: 공룡 발자국 형태, 공룡 발자국 길이, 보폭 거리

정리: 각 행을 5개씩 3줄 씩 정리해서 정리하면 된다.

23. 뒷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룡 발자국 화석 연구의 그 의미와
→ 한반도의 공룡 발자국 화석을 중심으로
- ② 공룡 화석과 중생대 백악기의 기후 환경
- 공룡의 분포와 서식지 특성을 중심으로
- ③ 한반도 공룡 발자국 화석의 세계
- 공룡과 환경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④ 한반도 서식 공룡의 다양성
- 용각류, 조각류, 수각류의 공룡을 중심으로
- ⑤ 공룡 화석 연구의 가치
- 공룡 골격 화석의 학술적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항상 읽은 정신으로 집중한다. 매일 꾸준히 한다.

이해하기 위해 정제된 자료

보통 글의 중심 주제 및 주제에 맞는 것을 찾아라

* <보기>는 중생대 백악기 지층의 공룡 발자국 화석을 조사한 결과이다. 뒷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다음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조사 결과]

- FL ㉠. 발자국 길이 - A: 평균 25 cm, D: 평균 25 cm
- ㉡. 뒷발자국 길이 - B: 평균 30 cm, C: 평균 36 cm
- SL ㉢. 보폭 거리 - A: 평균 230 cm, D: 평균 150 cm
- ㉣. 발자국 모양 - A와 D 모두 발톱 자국이 보이며, 발자국의 길이가 폭보다 길.
- ㉤. 동일한 지층에서 공룡 발자국, 건열, 새의 발자국이 발견됨.

24. 뒷글을 읽고 <보기>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와 C를 남긴 공룡은 모두 초식 공룡이었을 것이다. X
- ② 이 지층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었을 것이다. O
- ③ 중생대 백악기에는 공룡과 새가 함께 서식했을 것이다. O
- ④ B를 남긴 공룡은 C를 남긴 공룡보다 'h'가 작았을 것이다. O $h=4FL$
- ⑤ B를 남긴 공룡은 4족 보행, D를 남긴 공룡은 2족 보행을 했을 것이다. O

25. '상대적 보폭 거리'를 이용하여 A와 D로부터 공룡의 보행 상태를 더 정확하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 A: 2.3 / D: 1.5
- ① 보통 걸음 보통 걸음
 - ② 빠른 걸음 보통 걸음
 - ③ 빠른 걸음 빠른 걸음
 - ④ 달림 보통 걸음
 - ⑤ 달림 빠른 걸음

A는 수각류의 발자국 특징에 해당되는 형태를 하고 있으므로 육식형 공룡이었을 것이다. → 조개가 아니라 민달팽이같은 민달팽이 같은 거 아니었다. 확실한 근거는 발자국의 길이와 폭의 비례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찾아라...)

$h = 4FL$
 $SL/h \rightarrow \frac{SL}{4FL}$

● 끝까지 평가원을 묻고 늘어진다.
● 대충대충 독해 습관과 감 문제풀이와 투쟁한다.

마르고 닳도록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본 사람은 한 번쯤 '어떻게 작은 파일 안에 수십만 장이 넘는 화면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을 것이다. 동영상 압축은 막대한 크기의 동영상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만 남김으로써 화질의 차이는 거의 없이 데이터의 양을 수백 분의 일까지 줄이는 기술이다. 동영상 압축에서는 일반적으로 **화면 간 중복**, **화소 간 중복**, **통계적 중복** 등을 이용한다.

2. 동영상은 연속적인 화면의 모음인데, **화면 간 중복**은 물체가 출현, 소멸, 이동하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이 비슷한 것을 말한다. 스튜디오를 배경으로 아나운서가 뉴스를 보도하는 동영상을 생각해 보자. 현재 화면을 이전 화면과 비교하면 아나운서가 움직인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따라서 현재 화면을 모두 저장하지 않고 변화된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만 저장하면 데이터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3. 하나의 화면은 수많은 점들로 구성되는데, 이를 화소라 한다. 각각의 화소는 밝기와 색상을 나타내는 화소 값을 가진다. **화소 간 중복**은 한 화면 안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화소들끼리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거나 변화가 규칙적인 것을 말한다. 동영상 압축에서는 원래의 화소 값들을 여러 개의 성분들로 형태를 변환한 다음, 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들을 제거하고 나머지 성분들만을 저장한다. 이때 압축 전후의 화소들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으나 변환된 성분들을 저장하는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화질의 차이가 별로 없이 데이터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런데 화면이 단순할수록 또 규칙적일수록 화소 간 중복이 많아서, 제거 가능한 성분들이 많아진다. 다만 이들 성분을 너무 많이 제거하면 화면이 흐려지거나 얼룩이 @지는 등 동영상의 화질이 나빠진다. 이러한 과정은, 우유에서 ①수분을 없애 전지분유를 만들면 부피는 크게 줄어들지만 원래 우유의 맛이 거의 보존되는 것과 비슷하다.

[A] 압축 전후의 화소들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으나 변환된 성분들을 저장하는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화질의 차이가 별로 없이 데이터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런데 화면이 단순할수록 또 규칙적일수록 화소 간 중복이 많아서, 제거 가능한 성분들이 많아진다. 다만 이들 성분을 너무 많이 제거하면 화면이 흐려지거나 얼룩이 @지는 등 동영상의 화질이 나빠진다. 이러한 과정은, 우유에서 ①수분을 없애 전지분유를 만들면 부피는 크게 줄어들지만 원래 우유의 맛이 거의 보존되는 것과 비슷하다.

4. 압축된 동영상에 저장해야 하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는 위의 과정을 거쳐 이미 많은 부분이 제거된 상태이다. 통계적 중복은 이들 데이터에서 몇몇 특정한 값이 나오는 빈도가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것을 말한다. 이때 자주 나오는 값일수록 더 짧은 코드로 변환하여 저장하면, 데이터 값을 그대로 저장할 때보다 저장하는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A: 동영상 압축
A: 화면 간 중복, 화소 간 중복, 통계적 중복

26. 뒷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면이 복잡한 경우에는 화면 간 중복을 제거할 수 없었어. X
- ② 화면이 흐려지는 이유는 화소의 개수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이겠어. X
- ③ 화질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경우에는 화소 간 중복만 제거할 수 있겠어. X
- ④ 맨 첫 화면에서는 이전 화면이 없어 화소 간 중복을 제거할 수 없었어. X

SCAN + 소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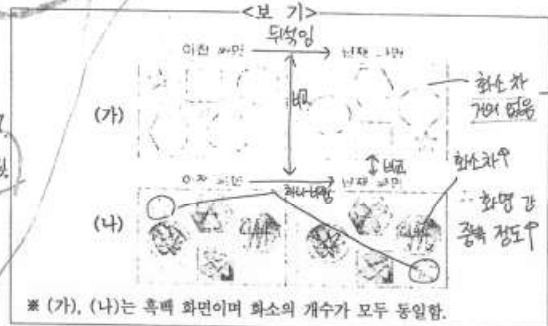
good.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많아서 많으면 안 되겠지!

⑤ 변환된 성분을 제거하는 정도에 따라 압축된 동영상 파일의 크기가 달라지겠어. O

①~④ 모두 소거되어 평한 마용으로 판단
변화 성분을 제거하면 데이터 양을 줄일 수 있지만 화질도 당연히 제거하는 정도에 따라 압축되는 데이터 양도 달라지거나 파장한다.

27. ①에 대응하는 것을 [A]의 동영상 압축 과정에서 찾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하나의 화면
② 동영상의 화질
③ 원래의 화소 값들
④ 압축 전후의 화소들의 개수
⑤ 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들

28.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 한 것은?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 사이의 화면 간 중복 정도	현재 화면 내의 화소 간 중복 정도
① (가)가 더 높다	(가)가 더 높다
② (가)가 더 높다	(나)가 더 높다
③ (나)가 더 높다	(가)가 더 높다
④ (나)가 더 높다	(나)가 더 높다
⑤ (가)와 (나)가 같다	(가)와 (나)가 같다

* (가), (나)는 흑백 화면이며 화소의 개수가 모두 동일함.

29.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돌을 던지자 고요한 호수에 파문이 일었다. ㉠
- ② 눈 내린 마당에 강아지 발자국이 난 있다. ㉠
- ③ 주머니에 구멍이 생겨 동전을 잃어버렸다. ㉠
- ④ 새로 산 차에 흙이 가서 속상하다. ㉠
- ⑤ 그는 나이가 차 장가를 들었다. X

그냥 죽어져 강... 많은 사례는 '손톱에 뽕아' '물이 들었다' 정도일까?

good.
문맥이 생겼을 것이지

마르그 님도록

- 3rd
36. ㉠-㉥ 중 문맥상 함축하는 의미가 다른 하나는?
① ㉠ ② ㉡ ③ ㉢ ④ ㉣ ⑤ ㉤
- 2nd
37. <보기>를 바탕으로 [A], [B]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김승옥은 '역사'에서 일반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사실성을 추구하였다. 이 작품의 창작 의도를 밝힌 글에서 그는, "우리의 눈에는 비사실적인 것도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했다. 작품 속의 '동대문 성벽의 돌덩이 옮겨 놓기'라는 소재는, 이를테면 '외국인의 눈'을 통해 새롭게 변형된 것이다. 작가는 '변형'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작중 상황에 실감을 주는 소설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 ① '금고만 한 돌덩이'는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비사실적인 소재이겠군. X <보기>와 정반대의 내용
- ② '동대문'이라는 낯선 배경을 제시하여 독자들이 느끼는 실감을 떨어뜨리고 있군. X
- ③ '서씨' 가게의 내력을 제시한 것은 '서씨'의 행위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이군. △ O
- ④ '푸르게 빛나는 조명'은 '서씨'의 신성한 면모를 일상적인 모습으로 '변형'하려는 의도에서 설정된 것이겠군. △
- ⑤ '나가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는 것은 '돌덩이 옮겨 놓기'가 사실이 아니라 환상이었음을 암시하고 있군. X

- ⑥ 완전 헛소리 푸 헛소리야... 헛... 77777 아나...ㅠ
- ① ~ ④ 판단 과정에서 적절성 판단인지 부적절성 판단인지 miss. 안했었다 푸
- ③, ⑤에서 헛헛했다나 신경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③이 <보기>에
- [38-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더 잘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 말에 비로소 들어
상사(相思)하던 우리 눈물 꿈 가운데 해후하니

㉠ 시름과 한(恨) 못다 일러 한바탕 꿈 흠이더니
㉡ 아리따운 고운 얼굴 곁에 얼핏 앉았는데
어화 아득하다 꿈을 생시 삼고지고

잠 못 들어 탄식하고 바빠 일어나 바라보니
구름산은 첩첩하여 천리몽(千里夢)을 가려 있고
흰 달은 장창하여 두 마음을 비추었다

㉢ 좋은 기약 막혀 있고 세월이 하도 한사
엇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붉었다니
그 곁에 홀홀하여 잎에 가득 가을 소리라

㉣ 새벽 서린 지는 달에 의기리기 슬피 울 제
반가운 남의 소식 행여 울까 바라더니
아득한 구름 밖에 빈 소리뿐이로다
지리하다 이 이별이 언제면 다시 볼까
㉤ 어허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이 그리 못 가고
약수(瀉水)* 삼천 리 멀단 말이 이런 곳을 일렀구나

산 머리에 조각달 되어 남의 낮에 비추고자
바위 위에 오동 되어 남의 푸른 배고자

[A] 빈산에 찰새 되어 북창(北窓)에 가 울고자
지붕 위 아침 햇살에 세비 되어 날고지고
옥창(玉窓)의 앵두화에 나비 되어 날고지고
태산이 평지 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도록
평생 슬픈 회포 어디에 건주리오

- 작자 미상, 「춘면곡(春眠曲)」 -

- 홀홀하여 :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 약수 :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 이름.

38.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이별로 인해 생겨난 슬픔이라 할 수 있어. O
② ㉡ :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O
③ ㉢ : '남'과 만나고 싶은 소망과 관련되었군. O
④ ㉣ :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상징하는군. △
- ⑤ ㉤ :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판의 표현으로 볼 수 있군. O
- ② ④ 중에 헛헛했다. ③은 '좋은 기약'이 '막혀 있고'라 해서 '남' 받지 못하는 화자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남과 만나고 싶은 소망'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판단.
- ④의 ⑤은 아무리 생각해도 연결이 잘 되지 않았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④ 판정 과정에서 적절성 판단인지 부적절성 판단인지 miss. 안했었다 푸

<보기>

시조나 가사에는, 입과 헤어져 있는 화자가 어떤 특정한 연물로 다시 태어나서 입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진술이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진술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한 관습적 표현인데, 그 속에는 당대인들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인간과 자연이 깊은 관련을 맺으며 조화를 이룬다는 인식, 현세의 인연이 후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순환적 인식 등이 그것이다. 시가에 담긴 이러한 인식은 화자가 현실의 고난이나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①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한 것은 개인적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겠어. O
- ② 비슷한 의미 구조를 지니는 구절을 거듭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이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어. O
- ③ '오동', '세비', '나비' 등이 사용된 데서, 인간과 자연이 관련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어. O
- ④ '조각달'이나 '찰새' 같은 소재에는 '남'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이 담겨 있어. X
- ⑤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남'과 만나려 하는 것을 보니 화자가 '남'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어. O

구체적으로...
O.K.I.X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갈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① 견장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갔지만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②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님의 침묵을 뒹싸고 듭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나)

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뿔철로 가는 길이 온통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흩날리던 날
양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③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뭇잎들
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

- 김광규, 「나뭇잎 하나」 -

4th (가) 시 읽고 ②③④ 선택 → (나) 시 읽고 ⑤ 선택 → 답 ①
40.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②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여 화자의 미감을 암시한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묘사한다.
- ④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이 지닌 의미를 재구성해 발견한다.
- ⑤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정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가) 과거 상황: 님의 이별
↓
정서: 개승 때ㅠㅠ
(나) 과거 상황: 몰랐어, 못 느끼어
↓
정서: 이제 알았어!

2nd 4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는 사상이 확산되고 있다.
- ② ㉠과 ㉡ 모두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 ④ ㉡은 ㉠에 비해 역동적인 느낌이 두드러진다.
- ⑤ ㉠은 사실의 기술이, ㉡은 판념의 표현이 부각된다.

⑦ 슬픔의 함 → 희망의 정수박이
의~침
⑧ 나뭇잎 떨어짐 → 의지 X
(이게 의지적이려면... ㅋㅋㅋ)
나뭇잎: 온갖에 풍을 달며 떨어졌어
ㅋㅋㅋㅋㅋㅋ
산과 들이
시냇물
네뭇잎이
ㅋㅋㅋㅋ

1st 42. <보기>를 바탕으로 ⑥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님의 침묵」에서 「노래」와 「침묵」은 화자와 「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시어이다. 한용운은 시 「반비레」에서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 그러나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요」라고 했다.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재를 본 것이다. 화자는 「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데, 시 「나의 노래」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개신 남에게 들리는 줄」을 안다고 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기> 핵심:
「님」의 부재(침묵) 속에서 자신의 노래를 통해 근원적인 소통
good.

- ① 노래가 제 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은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화자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 ② 노래가 「님」의 침묵을 뒹싸고 온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재하는 「님」과 깊이 교감한다는 뜻이다.
- ③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나아간다고 한 데서 「사랑의 노래」가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어.
- ④ 침묵을 뒹싸고 도는 노래가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
- ⑤ 침묵하는 「님」에게서 노랫가락을 역력히 듣는다는 데서 「사랑의 노래」가 화자의 노래가 아니라 「님」의 노래임을 알 수 있어.

SCAN
이것이 가려진
문헌

마르고 당도록

- 310
43.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1연, 2연에서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 ② 1~3연에서 '골짜기'→'길'→'대추나무'→'나뭇잎 하나'로 시작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
 - ③ 1~4연에서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와 같은 부사는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 ④ 4연에서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 ⑤ 4연에서 화자는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

4연 전체를 파악했을 때 연대장의 느낌을 받았다. 으러려 화합한다고 봐야 할 것 같은... 너무 강요하는 느낌이다... 다른 선지 선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우유... 펜 다들거)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89. 불이의 집(나)
누군가 대문을 두드린다. 들어낸 짐을 정리하면서 어머니 들어본다. 영희나 하고 달려가 문을 열면 얼굴이 붉은 영호와 영수가 들어온다.

영호 엄마 영희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영호 엄마 우리 파티를 하죠. 불고기 파티를..... 이거 고집니다.

하고는 어머니에게 준다. 말없이 보다가 가져가는 어머니.
불이 얼굴은 왜 다쳤니.
영호 (빙긋 웃고) 덕분에 고기를 얻었어요. 얘기가 좀 복잡해요.
하고 함께 마당으로 나간다.

90. 고급 레스토랑
비프스테이크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철이 다소곳한 영희에게 다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91. 불이의 집 마당
풍로에 불을 지피고 있는 불이 어머니는 고기에 양념을 친다. 보고 있는 영수와 영호.
영호 다운은 됐지만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영수 말없이 앞만 본다.

92. 레스토랑
영희가 접시의 고기를 서둘러 씹고 있다. 지켜보던 우철이 접시를 가져다 익숙한 솜씨로 고기를 잘라 소스까지 쳐 준다. 약간 화가 나 지켜보는 영희.

93. 불이의 집 마당
익고 있는 고기. 식구들이 둘러앉아 고기를 먹는다.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집 부수는 소리, 해머 소리.

94. 몽타주
영희와 우철이 고기를 먹고 있다.

영희를 댄 가족이 고기를 씹고 있다.
이들의 면모가 다양하고 자세하게 묘사되며 몽타주된다.

95. 불이의 집
① 뿔뿔 하고 소리 나며 흔들리던 담벽에 큰 구멍이 난다. ② 커다란 해머가 구멍을 뚫어 온다. ③ 구멍으로 안의 전경이 보인다. 태연히 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난쟁이 식구들이 보인다. ④ 담벽이 크게 무너지며 먼지가 일어난다. 지켜보는 인부들, 가라앉는 먼지의 마당. ⑤ 식구들이 말없이 먹기를 계속한다. 인부의 대장이 눈짓을 하면 인부들이 흩어져 앉으며 맘을 닦는다. 마지막 파티를 하는 난쟁이 일가를 기다리는 인부들. 인부들도 즐거운 듯이 아니다. 어머니가 익은 고기를 접시에다 주섬주섬 담는다. 일어나는 어머니, 식구들이 의아하여 본다. 어머니가 고기 접시를 들고 인부들에게 간다. 어리둥절하다가 담뱃불을 끄는 인부들.

어머니 (담담하다) 고기가 얼마 남지 않았군요. 한 점씩이라도 드세요.
하며 고기 한 점을 집어 대장부터 내어 준다. 멍하니 보다가 황급히 손바닥으로 받아먹는 대장. 말없이 지켜보는 대장. 영호만이 턱을 악물고 눈물이 글썽한다. 어머니는 계속하여 고기 한 점씩 인부들에게 나누어준다.

어머니 아저씨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저씨들이라고 좋아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처지와 다른 것도 없을 텐데..... 젊은 힐리더라도 오늘 하루 여기서 자야 해요. 딸이..... 집 나간 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96. 고급 맨션 앞
우철이 승용차를 몰아와 아파트로 진입하고 있다. 다소곳이 앉아 있는 영희의 모습.

97. 불이의 집
일거에 폭삭 무너지는 담. 방문을 열고 나와 선 식구들 앞서 뽀얗게 먼지가 일어난다. "명희 언니는 큰오빠를 좋아해"라 쓰인 장독대가 큰 해머에 의해 부서진다. 파괴되어 가는 과정이 다각도로 보여진다.

- 흥과 각색,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 다운 : 전투 시험에서 상대방의 공격으로 쓰러진 상태.
• 몽타주 : 넓은 의미로는 편집 작업을, 좁은 의미로는 서로 다른 화면을 결합하는 방식을 가리킴.

44. 뒷줄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인부들은 불이의 집을 허무는 일에 대해 기꺼워하지는 않았다. ○
- ② 영수는 무너지는 집을 바라보며 지나간 기억을 반추하고 있다.
- ③ 어머니는 영희에 대해 무관심한 아들들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불이는 영희의 상처에 대해 물었지만 영호는 불이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 ⑤ 영희는 우철의 다정한 태도에 호감을 느껴 자신의 현재 처지에 만족하고 있다.

인부들이 대답하지는 않았으므로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나머지 선지가 소거되어 ①이 정답!

주제어
이해
이해
이해

주제어
이해
이해
이해

이해
이해
이해

이해
이해

■ 글까지 평가원을 돌고 늘어진다.
■ 대충대충 독해 습관과 감 문제풀이와 투쟁한다.

마르고 답도록

45.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통해 '# 95'를 지문 내용에 충실하게 풀
영하려고 한다. ㉠~㉣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해머 소리를 음향 효과로 제시하면서 흔들리는 담벽을 보여 준 후에 담벽에 난 구멍을 보여 준다면, 상황이 실감 나게 전달될 수 있을 거야. 0
- ② ㉡ : 담벽의 구멍을 보여 준 이후 그 구멍으로 해머가 모습을 드러내도록 촬영하면, 카메라가 인부들의 시선을 대변할 수 있을 거야. X *어디까지나 카메라가 시선을 대변하는 거야.*
- ③ ㉢ : 담벽에 난 구멍을 통해 난쟁이 일가의 모습을 포착하려면, 카메라는 담벽 바깥쪽에 위치해야 할 거야. 0
- ④ ㉣ : 담벽이 무너지고 인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도록 촬영하면, 난쟁이 일가가 쥐를 사탕이 구제화되는 시각적 효과를 살릴 수 있을 거야. 0
- ⑤ ㉤ : 난쟁이 일가가 식사하는 장면을 다시 화면에 담는다면, 절거 위협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는 난쟁이 일가의 태도를 부각할 수 있을 거야. 0

구멍으로 해머가 드러나면 인부들의 시선이 어느 방향으로
즉, 난쟁이 일가의 시선을 대변하는 것이 되고 특수 있는
사건일 것이다.

3rd. > 내용이 대강 봤을 때 내용과 관련된 것이 없었던 거지 아니 X
46. <보기>를 바탕으로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시나리오에서 두 개 이상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될 때,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주 플롯'이라 하고 부수적인 이야기를 '부 플롯'이라 한다.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M1, M2, ..., Mk, ..., Mn이라 하고, 부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S1, S2, ..., Sk, ..., Sn이라 할 때, 전체 구조는 M1 → S1 → M2 → S2 → ... → Mk → Sk → ... → Mn → Sn의 순서를 따르는데, 이러한 정렬 방식을 '교차편집'이라고 한다. Mk에서 Sk로 전환될 때 두 장면 사이의 유사성이나 대조점을 활용하면 장면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Mk와 Sk가 한 장면 내에서 만날 때 나뉘어 있던 두 플롯이 더욱 긴밀하게 연관될 것이다.

- ① # 90, # 92, # 96은 부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이다. 0
- ②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0
- ③ 주 플롯과 부 플롯은 # 94에서 만나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갖게 된다. X
- ④ <보기>는 주 플롯과 부 플롯을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유사성으로 활용된다. 0
- ⑤ 고급 아파트와 낡고 무너진 집의 대조를 통해 두 플롯을 연계한 대목이 있다. 0

서로 다른 공간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문득 기법을 통해 한 화면에 나타날 것이다.

good.
문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 화면에 나타날 것이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처사가 말했다.

"제가 한 말을 두었으나 심육 세가 되도록 혼처를 정하지 못 하였습니다. 천하를 떠돌다가, 다행히 존분에 이르러 아드님을 보니 마음에 드는지라, 여식은 용렬하고 재주가 없으나 존분에 용납될 만하니, 외람하나 혼인을 정함이 어떠하오이까?"

상공이 '처사의 도덕이 높으니 딸 또한 영민하리라.' 생각하고 답했다.

"존객은 선인인요 나는 속세 사람이라, 어찌 인간 세상 사람이 선인과 혼인을 의논하리까?"

처사가 답했다.

"상공은 아군 재상이요 나는 미천한 인물이라, 미천한 인물이 귀덕에 친혼함이 극히 불가하나 버리시지 아니하오면 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공이 즐겨 즉시 혼인을 허락했다.

이때, 상공이 친척들을 모아 경혼한 일을 이야기하니 부인이 의아해 하며 말했다.

"혼인은 인물대사라, 어찌 재상가에서 의논도 없이 근분도 모르는 집안과 결혼하 혼약을 하시나이까?"

하고 의논이 분분하자 공이 말했다.

"내 들으니 처사의 말이 재덕을 겸비했다 하기에 혼약했으니 괜한 시비 마시오."

차실, 이때 혼인날이 임박하자 혼구를 찬란하게 차려 하인들을 거느리고 금강산으로 길을 떠날새, 공은 위풍이 당당하고 시색은 풍채가 빛났다. 이런 경사에 친척과 하인 등이 웃지 않을 자 없고 조정에서도 눈박이 그치지 않더라.

여러 날 만에 금강산을 찾아가니, 풍경도 좋거니와 때도 마침 삼춘이라, ㉠ 좌우 산천 바라보니 각색 화초 만발한데 봉접은 편편 남아 꽃을 보고 춤을 추고, 수양버들은 늘어졌는데 황금 같은 피꼬리는 환우성(喚友聲)이 더욱 좋다. 경치를 구경하며 점점 들어가니 사람 발자취가 없는지라, 하는 수 없이 주정을 찾아가 쉬고 이튿날 다시 발행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인적은 고요하니 볼 수 없고, ㉡ 층암은 층층하여 병풍을 둘러친 듯, 시냇물은 잔잔하여 남청을 부르는 듯, 비죽새는 슬피 울어 허황한 일을 비양하는 듯, 두견새는 처량하여 사람의 심회를 듣는지라, 공이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본즉 도리어 허탄한지라. 후회막급이나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다가 날이 저물어 다시 주점에서 쉬고, 다음날 산곡으로 들어가니 심산곡곡에 갈 길은 끊어지고 물을 곳은 전혀 없었다. 길 위에서 방황하다가 바위 위에 노송을 의지하고 앉아 허황함을 자탄하더니 홀연 산곡에서 노랫소리 나며 초동 수삼 인이 나오기를 반겨 길을 물으니 ㉢ 초동이 답했다.

"이곳은 금강산이요, 이 길은 박 처사 살던 터로 통하는 길인데, 우리 지금 박 처사 살던 곳에서 내려오나이다."

공이 기뻐 또 물었다.

"처사는 집에 계시더나?"

초동이 대답했다.

"옛 노인이 말하기를 '수백 년 전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무를 얹어 집을 짓고 열매를 먹으며 청호를 박 처사라 하고

the same
다시 물어봐도 0.

조동생 한 사람이 "박 처사" "이시백" "박 처사" "이시백" "박 처사" "이시백"

* 다른 문제의 박 처사 이시백이 한 사람이다.

마르고 답도록

살았는데 돌연 간 곳을 모르겠다.' 하고 말씀하는 것만 들었지, 지금 박 처사가 산단 말은 금시조문이로소이다."
 ⓐ이 말을 듣자 정신이 더욱 아득하여 말했다.
 "처사가 그곳에서 살던 때는 몇 해나 되었나요?"
 ⓑ동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개서 산 지가 사백 년이라 하더이다."
 하며 다시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가거늘 ⓐ이 더욱 막막하여 하늘을 바라 크게 웃으며 차탄했다.
 "세상에 허무한 일도 많도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하는 수 없어 주점에 돌아와 머물세. ㉠ 백이 부친을 위로했다.
 "옛날 한(漢) 무제도 선술을 구하다가 마침내 구하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왔으니 후회해도 소용없사오지라. 도로 돌아감만 같지 못하오이다."
 ⓐ이 웃으며 말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그저 돌아가도 남에게 웃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돌아가지 않은즉 허황함이 막심한지라, 내일은 곧 천안(鰲巖) 날이니 부득이 내일만 찾아보리라."
 하고 이른날 노복을 데리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반일토록 산중을 왕래하여 찾더라. 그날 오후에 한 사람이 갈건야복으로 죽장을 걸고 백우선으로 얼굴을 가리고 유유히 산곡에서 내려오니 반갑기도 그지없다. 일행이 고대하던 중,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워 눈을 씻고 다시 보니 박 처사가 분명한지라.
 - 작자 미상, 「박씨전(朴氏傳)」 -
 • 환우성: 벗을 부르는 소리.
 • 천안: 전통 혼례 진행 절차 중의 하나.

4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전 소설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교섭을 통해 신성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미학적 원리로 삼는다. 고전 소설은 초월계가 천상에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그 공간을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초월계를 현실 세계보다 상위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소산이며, 초월계를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것은 수평적 사고에 해당한다. 초월계는 본래 인간의 접근이 쉽지 않은데, 수평적 사고를 취하면 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박씨전」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공간으로 「금강산」을 설정하고, 그곳에서 천상 존재인 '박 처사'의 딸 '박씨'와 현실 세계의 존재인 '이시백'의 혼인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수직적 사고를 수평적 사고 속으로 아우르고 있다.

- ㉠ '부인'이 '상공'의 혼인 결정을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결과이군. X
- ㉡ '박씨'와 '이시백'의 혼인 장소로 금강산을 설정한 것은 신성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군. 0
- ㉢ '상공'이 '박 처사'를 쉽게 찾지 못하도록 한 구도에서 금강산이 지닌 초월계의 성격을 찾을 수 있겠군. 0
- ㉣ '박 처사'와 '상공'이 금강산에서 만나는 장면에서 초월계와 현실 세계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군. 0
- ㉤ 초월계의 선인이면서도 현실 세계에서는 '박 처사'로 불린 인물의 모습은 금강산의 이중적 성격과도 연관되는군. 0

47. 윗글을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 '박 처사'가 혼인을 청한 것은 '상공'의 인품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X
- ㉡ '상공'이 사람을 보는 눈은 평범한 사람과 다른 데가 있다. 0
- ㉢ '상공'의 부인은 '박 처사' 딸의 재주를 의심하여 혼인을 반대하고 있다. X
- ㉣ '조동'은 길을 헤매고 있는 '상공' 일행을 측은하게 여기고 있다. X
- ㉤ '이시백'은 부친의 성급한 혼인 결정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X

4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극진한 경양 표현을 통해서 청혼 자리의 분위기를 드러낸다. 0
- ㉡ ㉡: 한문 구절을 끌어 와서 인물이 자기 생각의 정당성을 드러내게 한다. 0
- ㉢ ㉢: 시선의 이동에 따라 경치를 묘사하여 둘러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0
- ㉣ ㉣: 배경을 시·청각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를 잘 드러낸다. 0
- ㉤ ㉤: 대화 속에 고사를 인용하여 인물이 처한 쓸쓸한 상황을 부각한다. X

50. ⓐ에 나타난 '상공'의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1점]

- ㉠ 이항지사(已往之事)
- ㉡ 자포자기(自暴自棄)
- ㉢ 만시지탄(晚時之歎)
- ㉣ 진퇴양난(進退兩難)
- ㉤ 새옹지마(塞翁之馬)

* 어떤 모의고사를 풀면서 순차적 감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었다. 앞부분만 느껴 보면 모든 선지 다 파악하려한다...
 수고해! (웃음)

해설지를 건성으로 읽고 '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만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문제의식을 더욱 날카롭게 가져야 한다. '왜 이럴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가슴 아프게 스스로를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하나 교정해 나가야 한다. <시간 간격을 둔 기술 반복 학습>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 능력,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체화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라. 실력은 그렇게 늘어나는 거다.

디자인국어 푸는 데 활용하세요